

광주 이도현, 스포츠클라이밍 리드 부문 1위

볼더링 2위...광주시산악연맹, 전국선수권서 상위권 다수 입상 선전
김란 여자부 리드 2위·볼더링 6위...스피드전 신은철 5위·김혜빈 6위

광주시산악연맹(회장 피길연) 선수단이 '제41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서 다수의 상위권 입상자를 배출하며 선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지난 21~23일 서울 용마포공원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에서 리드(Lead)·볼더링(Bouldering)·스피드(Speed) 등 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리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15m 높이의 암벽을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는 종목이고, 볼더링은 4~5m 높이의 여러 코스 중에서 더 많은 코스를 완주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종목이다. 경기 결과 광주시산악연맹 선수단 가운데 이도현(바위클라이밍)은 리드 부문 남자 일반부에서

1위, 볼더링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김란(바위클라이밍)은 리드 부문 여자 일반부에서 2위, 볼더링에서 6위에 올랐다. 또한 스피드 부문 남자 일반부에서는 신은철(광주실내악벽)이 5위, 여자 일반부에선 김혜빈(중앙고등학교)이 6위를 차지했다.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서울중랑구가 후원한 이 대회에 광주시산악연맹에서는 조계주 감독을 비롯해 코치 3명, 선수 13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산악' 광주 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3일 서울 용마포공원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에서 열린 '제41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볼더링 부문에 출전한 광주시산악연맹 이도현(바위클라이밍) 선수가 힘차게 벽을 오르고 있다. 왼쪽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광주시 대표 선수단. <광주시산악연맹 제공>



광주대 태권도 '메달 행진'

안지원·유효경 전국대회 동메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태권도부가 전국대회에서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대는 최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대학일반부 -63kg 안지원(2년)과 -62kg 유효경(1년)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광주대 태권도부는 지난달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이어, 이번 대회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 태권도 강호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대 태권도부 강경도 감독은 "올해 많은 대회를 치르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PGA도 '매치퀵' 가린다

'뱅크 오브 호프' 27일 개막
고진영·박인비·김세영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이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에서도 '매치퀵'이 탄생할 예정이다. LPGA는 오는 27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릭 골프클럽(파72·6804야드)에서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 (총상금 150만달러)를 개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한국계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이번에 처음 열린다. LPGA에서 '매치플레이 방식'의 대회가 열리는 것은 2017년 5월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난주에는 KLPGA 투어에서 매치플레이 대회가 열렸다. 박민지(23)가 지난 23일 막을 내린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시즌 3승 고지에 오르고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에는 세계랭킹 1~3위 고진영(26), 박인비(33), 김세영(28)이 모두 출전한다. 이 가운데 김세영은 LPGA 투어의 마지막 매치퀵이었다. 2017년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우승자가 바로 김세영이다. 김세영은 직전 대회인 퓨어실크 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에 오르며 예열을 마쳤다. 고진영과 박인비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이후 약 한 달 만에 대회에 나선다. 싱가포르 대회에서 고진영은 공동 24위, 박인비는 공동 3위를 차지했다. 27~29일에는 4명씩 16개 조로 나눠 예선전을 치른다. 30일에는 16강과 8강, 31일에는 4강과 결승전, 그리고 3위 결정전이 열린다.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은 1~3조로 각기 편성돼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고진영은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카롤리네 마손(독일), 내털리 켈비스(미국)와 같은 조고, 박인비는 가비 로페즈(멕시코), 쉘린 부티에(프랑스), 제니퍼 장(미국)과, 김세영은 브리트니 울터마레이(미국), 류위(중국), 우에하라 아야코(일본)과 대결한다. 세계랭킹 7위 김효주(26)는 신지은(29), 매건 캉(미국), 엘리스 리(미국)와 맞붙는다. 유소연(31), 이미림(31), 지은희(35), 라이언 오솔(미국) 등 한국 선수가 3명이나 모인 조도 있다.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준우승한 박주영(31)의 언니인 박희영(34)은 박성현(28), 오수현(호주), 조피아 포포프(독일)와 조별 예선을 치른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 '무자격자 투표' 이의신청 수용 안해

심의서 기각...자격기준, 결국 법원 최종 판단으로 가려질 듯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자격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가 자신들이 정한 유권자 자격기준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같은 결과가 나오며 따라 이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다. 낙선자들은 광주지법에 '무자격 유권자의 표결로 인한 선거무효'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12차 위원회를 열고 낙선자인 이강근·전갑수 후보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서는 이의신청서에 적시된 '보결선거에

의 구성'과 관련돼 있다. 이른바 '승인 대의원' 조항이다. 해당 규정 3항은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분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소수 종목 단체가 총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절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다. 하지만, 낙선자들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회와 선관위가 3항의 단서조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에게까지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

여했다는 것이다. 같은 규정의 4항에는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로,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 대표를 선임한다'고 자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3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재된 대표로 한다는 전체 조건을 충족해야 대의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선관위는 이상동 당선자의 사전 선거운동의 확대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어렵고 금품 제공 사실 발견되지 않았다", "체육회 임직원 등의 규약규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검도 단체전 3위

양상훈·양욱 국가대표 상비군

조선대학교 검도부가 전국대회 단체전 3위에 올랐다. 조선대는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63회 춘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 단체 4강전에서 국민대학에 0-1로 패배해 3위를 차지했다. 8강전에서 조선대는 성관대학교에 6-5, 포인트 승을 거두고 4강전에 진출했다. 조선대는 이 대회와 함께 열린 2021년 전국대학검도연맹 상비군선발대회에서 양상훈·양욱(4년) 등 2명의 국가대표 상비군을 배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검도부. 앞줄 왼쪽부터 정영호(3년)·김강호(3년)·백승현(4년)·이경민(4년)·양동관(3년)·최진성(1년)·정인지(2년), 뒷줄 왼쪽부터 양상훈(4년)·오길현 조선대감독, 김태호 광주시검도회 전무, 김현준 광주시검도회 실무부회장, 나훈일(신창검도관장) 심판, 양욱(4학년). <광주시검도회 제공>

고흥 출신 역도 신록

세계주니어선수권 동메달

고흥 출신 신록(19·고양시청·사진)이 2021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선물했다. 신록은 2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 남자 61kg급 인상에서 125kg을 들어 이 부문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신록은 용상 1~3차 시기에 모두 바벨을 들지 못해 용상과 합계에서는 메달을 얻지 못했다. 신록은 용상 1차 시기에 제출한 153kg만 성공했어도, 용상과 합계에서도 시상대에 설 수 있었지만 세 차례 모두 바벨을 놓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3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비와 당신의 이야기
4관	파이프라인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크루엘라, 애플
6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크루엘라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링: 더 라스트 캠프
7관 씨네커튼	크루엘라, 보이저스, 애플
8관 씨네커튼	파이프라인, 도라에몽: 스텐바이미 2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내일의 기억 링: 더 라스트 캠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2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